

안전은 곧 자기 사랑에서부터

제46호 자랑스런 안전인 도루코(문막공장)엄재은


가을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 앉은 영동고속도로를 달린다. 휴게소에 들려 따뜻한 커피잔에서 피어오는 새하얀 증기가 안개 속에 동화된다. 오랜만에 마셔보는 강원도의 공기는 무척이나 맑고 상쾌하게 느껴진다. 우리나라 주방용·문구용 칼의 대명사 도루코의 엄재은과장을 만나기 위해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으로 향했다.

전기공학도 엄재은과장은 1989년 11월에 도루코 문막공장에서 사회의 첫발을 내딛었다. 그는 문구, 주방용 칼을 만드는데 핵심 기술인 열처리부서를 거쳐, 2000년에 안전업무를 시작했다. 현장근무에서부터 쌓아온 경험과 안전에 대한 오랜 애착이 그를 자연스럽게 안전의 길을 걷도록 하였다.

근로자 대부분이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지 않고 장애를 갖고 있는 근로자들도 있어 우선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가장 급선무의 과제였다. 그래서 그는 년 4회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월례조회를 통해 안전에 대한 기본 지식을 주지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칼을 만드는 작업은 프레스 및 펀치기, 연마기 등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많은 기계들을 다루게 되는데 일찍이 엄재은과장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작업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동화를 추진하였고 지금은 일부 공정 이외에는 작업자가 직접 조작하는 위험기계는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직접적인 위험이 없어지기는 하였지만 연마기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프레스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난청과 호흡기 질환의

칼이 날카로울 때 그 효용이 높아지듯이 안전의식이 높을 때 사고에 대한 위험은 낮아집니다.



위험을 없애야 하는 또 다른 문제에 부딪치게 된 엄재은과장은 벤치마킹 사례를 통하여 각 연마기마다 국소배기 장치를 설치하고 프레스를 일반 작업공간과 완전히 격리시킴으로써 공장내 분진을 제거하고 소음을 80dB이하로 낮추는데 성공하였다. 얼마 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언어장애를 갖고 있던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결국 목숨을 잃은 것이었다. 가족도 없이 홀로 살던 그는 선천적으로 뇌혈관이 좁아 수술을 필요로 하였지만 비교적 간단한 건강검진으로는 알 수 없었던 탓에 소중한 목숨을 잃은 것이었다. 이에 엄재은 과장은 안전관리자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며 직장내 건강검진을 특수진단과 정밀진단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자 계획중이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적인 사랑만이 근로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길이라 말하는 그의 얼굴을 보며 앞으로 다시는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이라 믿음을 갖는다. 

< 임재근 기자 >